



주 제:	“ 화해하십시오.”	“사순 제 4 주일” (다해)	2007년 3월 18일
복음 묵상:	루카 15,1-3.11-32	여호 5,9 7.10-12	2 코린 5,17-21

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시하고 돈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.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가 경제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. 경제만 회복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?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 나질 못합니다. 어느 날 정신이 들 때 우리가 너무도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, 그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다시 아쉬워할 것입니다.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.

꼭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이 회개의 사순절에,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.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이고, 우리는 다시 삶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참으로 '즐거워하여라. 주일'이 될 것입니다.
(백남용 바오로 신부님 강론중에서)(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)

공지 사항:

- 지난 주 수요일(3/14)에는 수요/평화 기도회 합동으로 기도회와 치유예절로 따로 기도회를 하지 않아 기도회별 소식이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
- 3월 20일 화요일에는 찬미 미사가 있습니다.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
- 본당에서 새로운 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. 새로 단장한 웹에 성령 기도회 란에는 신자로 등록한 자는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많이 참가하시어 좋은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.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. <http://67.15.255.6/~sjkorean/> 이곳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나면 내용도 보고,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새 단장 중입니다. 함께 좋은 웹을 만들어 갑시다. 주님의 말씀도 전하면서...



기도

주님,
저희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께
나름대로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.

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저희가
기회는 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,
주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
무의미하게 흘려 버리지 않게 하소서.

주님,
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
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소서.
아멘.



<http://cafe.daum.net/abnfriends>